

문경지부, 현판식 및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

본회 문경지부(지부장 : 윤희수)는 지난 10월26일 지부 사무실에서 관내 양돈관련 기관·단체인사와 양돈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경시 최종국 부시장과 유진현 본회 경북도협의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양돈농가들은 김병호 돼지콜레라 비대본 박멸요원의 선창으로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 봉화지부, 창립총회 개최



김창돈 봉화지부장

경북 봉화군 봉화양돈계 회원 22명은 지난 11월11일 양돈협회 봉화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창돈씨를 초대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봉화지부가 설립승인을 받으면 본회 지부(지회)수는 86개로 늘어난다.

김창돈 초대 지부장은 현재 봉화읍 적덕리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다. **양돈**



돼지콜레라 비대본 소식

돼지콜레라 근절 2단계 전국 순회 교육 실시

-11월 10일부터 10개 지역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농가 참여의식 제고와 방역홍보를 위해 전국 각 도별 양돈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방역교육이 실시되었다. 돼지콜레라 비대본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시도의 협조를 얻어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방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포천을 선두로 지난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역당 150명씩 총 1,600명의 양돈인이 교육을 받았다.

정착촌 돼지콜레라 채혈검사 실시

- 비대본 전북도본부 돼지 3,218두 채혈

돼지콜레라 비대본 전북도본부가 전북지역에 특히 많은 정착촌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 채혈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본부는 지난 11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합숙을 하면서 4명이 1개조로 5개 방역팀을 구성,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익산시 왕궁면 정착촌 357호 농가의 돼지 3,218두에서 채혈하여 검사를 의뢰했다. 또 11월15일에도 4인 1개조로 5개팀을 구성, 김제시 용지면 소재 정착촌(신암리, 신흥리, 비룡리) 77농가 670두를 채혈하는 등 그동안 꺼려

왔던 정착촌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콜레라 채혈검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동물약품업체와 양돈장 등에서 박멸기금 납부가 줄을 잇고 있다.

10월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 94%

- 비대본 23개 시군 채혈검사 결과

전국 103개 돼지콜레라 비대본 시군방역단 가운데 지난 10월 채혈검사 결과가 나타난 23개 시군의 항체양성률이 두수기준 94%, 농가기준 92%로 나타났다. 비대본부가 지난 9, 10월 전국 축산위생연구소에 혈청검사를 의뢰한 것중 544농가, 4,924두에 대한 10월 항체검사 결과, 318두가 음성으로 나타났고 41농가가 항체양성률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23개 시군중 농가기준 100% 항체양성률을 나타낸 곳은 경북 영천, 영덕, 영주, 성주 지역이며, 경북 의성, 영주, 구미, 충북 보은 지역은 80% 미만의 항체양성률을 나타내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제일사료·제일제당 박멸기금 각 5천만원 기탁



김영욱 천·제일사료·사장(좌측)은 10월19일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방문, 윤희진 집행위원장에게 박멸기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제일제당(주)(사료본부장 이태호)이 5천만원을, 부국사료(대표 홍영기)가 1천만원의 박멸기금을 비대본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대한제당(주)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5천만원 기탁

-대한사료공업(주) 3천만원, (사)한국단미사료협회 217만원 납부



대한제당(주)(대표 : 박상은) 이무성 부사장(우측)은 11월1일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하고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5천만원을 최상백 상임본부장에게 전달했다.

또 지난 11월 3일에는 대한사료공업(주)(대표 김덕명)이 박멸기금 3천만원을 지로로 보내왔으며, (사)한국단미사료협회가 소속회사 등 13개 업체의 성금 2백17만원을 모아 비대본부에 전달했다.

비대본부 시군방역단 채혈 활동 본격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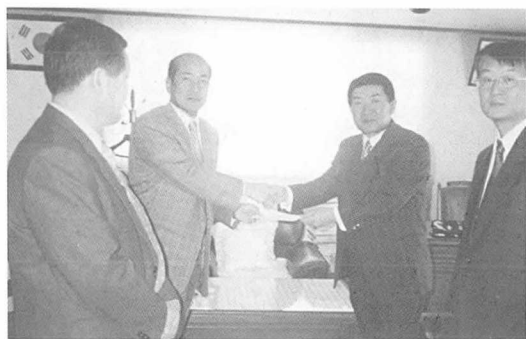
-9월중 62개 시군방역단서 7,948두 채혈

돼지콜레라 비대본은 지난 9월중 62개 시군방역단을 동원하여 1,001개 양돈농가 돼지 7,948두를 채혈해 각 시군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7,420두를 검사 의뢰 하였다.

9월중 농가방역 실태조사가 끝난 양돈농가 수는 4,820농가로 전체 24,393호 농가중 19.8%가 조사되

었다. 또 9월중 농가별 예방접종 지원은 368농가에 모두 71,279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한편, 10월26일 현재 전국에서는 101개 돼지콜레라 비대본 시군방역단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박멸기금 9천5백만원 모금



-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모금액 10억원 돌파

양돈관련 단체, 업체의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모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소속 회원업체들이 박멸기금 9천5백만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 1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백용 한국종돈업경영인회장(본회 부회장, 우에서 두번째)은 11월13일 돼지콜레라 비대본을 방문하고, 윤희진 집행위원장에게 경영인회를 통해 모금한 5천만원을 기탁했다. 나머지 4천5백만원은 회원업체별로 비대본에 전달되었다. 동 경영인회는 박멸기금 모금을 위해 한백용 회장과 부회장들이

도별로 방문하면서 간담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두산식품 부천공장이 1천1백50만원, (주)중앙케미칼이 5백만원을 전달했고, 박람회 기간중 최우수 전시업체로 선정된 세원물산(대표 김희순)과 (주)송강(대표 원성오) 등 기자재 업체들도 박멸기금을 납부하는 등 모금에 합류하고 있다. 11월16일 현재 박멸기금 모금액은 총 10억6천4백63만원이다.

비대본부, '돼지콜레라 퇴치 방법' 책자 발간



돼지콜레라 비대본은 11월4일 '쉽고 확실한 돼지콜레라 퇴치 방법' 소책자 5,000부를 제작했다. 이 책자에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방법, 예방약 관리요령, 일본의 청정화 동향, 시군방역단 주소록 등 돼지콜레라 박멸과 관련, 양돈농

가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비대본은 각 도본부를 통해 양돈농가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양돈**

본지 캠페인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